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86장 ..... 다같이

1.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후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2.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3. 이 땅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4.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살게 하소서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이사야 26:13-21 ..... 인도자

- 1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 14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시라 그들의 모든 기억을 잊어하셨음이니이다
- 15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 16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 17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 18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 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 20 내 백성이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 21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설 교 .....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사야 26:13-21)

존 나스는 1513년 스코틀랜드의 헤딩턴에서 태어났다. 나스는 가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았지만, 조지 위샤트를 만나 회심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종교개혁사상을 받아들였다. 당대에는 어둠이 짙었다. 성직자들은 무지와 부도덕과 타락에 빠져 있었다. 성경에 바탕을 둔 설교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종교개혁자들은 핍박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나스는 조지 위샤트가 화형당한 후 그를 대신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 19개월 동안 프랑스 갠리선의 노예로 일하다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노예선에서 풀려났고, 영국에서 설교자로 사역했다. 가톨릭교도 ‘피의 메리’가 영국 여왕으로 등극하자, 나스는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갔다. 나스는 칼빈이 목회하는 제네바 교회 옆 건물 칼빈 강당에서 약 200여 명의 영국 피난민들을 섬겼다. 1559년 스코틀랜드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칼빈은 나스에게 귀국을 종용했다. 나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메리 여왕은 “존 나스 한 사람의 기도가 잉글랜드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나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하였다. 스코틀랜드 내전은 에든버러 조약(1560년)으로 개신교의 승리로 끝났다. ▶존 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가는 꿈이 있었다. 1559년 이후 나스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면서 개혁의 봉화를 올렸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동반한 나스의 설교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전역을 휩쓴 개혁과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부터 강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에 말씀을 통한 대각성 운동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1561년 나스의 주도로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초로 장로교 총회가 시작됐다. ▶나스는 1565년 8월 19일 이사야 26:13-21을 잡고 설교했다. 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13절). 하나님 외에는 권세가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환난의 때에 회개해야 한다. 하지만 회개 그 자체가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으나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바람을 낳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17-18절). ③ 그럼에도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16절). 하나님이 오셔서 반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고통당하는 자들은 구출하신다. ④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15절). 하나님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결박에서 자유를, 어둠에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다. 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19절). ▶나스의 인생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용기이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나스는 왕의 절대 권력과 부패에 맞서 싸우면서 여왕도 교황도 국민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턴 백작은 나스의 묘 앞에서 “여기 일평생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말했다.